

오늘은 청파교회 설립기념 1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재해구호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초록장터가 오늘 교회 마당에서 열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오후 1:30 2층 예배실에서 정호진 목사님을 모시고 [세계의 마을들과 친구 되기] 특강을 듣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떼제 찬양과 기도회가 열립니다.

5월 3일부터 이범석 목사가 <사도행전>을 강의합니다. 강의는 6월말까지 진행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특별히 난민의 상황에 처해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딤후 1:3~8

오늘 식당 봉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김현주 김문주 조우석 이민범 한성건
 다음 주 식당봉사 : 이순정 오복순 이은미 김광일 신정훈 김성순 양경해
 오늘설거지봉사 : 2남선교회(51-6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3남선교회(46-50세)
 커피 판매 봉사 : 2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교회설립기념주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20.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108년 전 청파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온전히 동행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청파교회가 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생명과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린이날을 맞아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어른들로 하여금 작고 어린 생명을 돌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계21:3b,4 인도자
- ♣ 교 독 문 96. 어린이 주일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2부목회기도 김기석 목사
- 2부응답송 찬양대
- 2부찬양 304.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 ♣ 성경봉독 시 124:1-8 I. 인도자
II. 서수진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I.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참빛찬양대
II. 할렐루야 감사하세 찬양대
- 말 씬 그물은 찢어지고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성우	박유경	김승현	김수진	김애경	김영호	김영희	김정린	김정훈	이진영
김종철	고영애	김준호	박해자	김중수	이순정	김지윤	김정우	김지훈	이문홍
이미혜	박규석	박경선	박상욱	김방문	박해경	김배삼	김성우	김지현	이문홍
이소선	심상숙	신진식	변해정	심화섭	정영란	오슬기	오자영	김성우	이문홍
윤순우	이경남	이광섭	김수연	이미휘	이범석	류정욱	이예서	이우원	이문홍
이유진	이정은	이주경	안상숙	이주영	오재영	김재영	오재형	이승동	이문홍
임호성	임서영	장동훈	정은선	장재영	김재영	정아름	주경진	이명희	이문홍
강미선	최숙	최종원	최진성	최영은	최형준	강경화	황자순	무명	이문홍
한상균	한인철	조종윤	홍소형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무명	이문홍

감사헌금

강요한	원은이	국권휴	국민지	국영주	김극	김애경	김영호	김향자	김혜정
박재영	이현정	신진식	변해정	우순덕	이건우	이계숙	이계선	이소순	이범석
류정욱	이봉옥	이재애	이재희	임선양	신현숙	임선희	한상익	정영선	허지훈
오숙현	환경부	무명12							

녹색꿈헌금

윤미경 윤수진 조윤기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박성희	청파1속	김재흥	교회
안디옥	최경미	이소순	청파2속	송형운	
가나안	장영숙	쉽	청파3속	하현철	
베다니	박홍재	쉽	청파4속	김정민	
시온	권미숙	쉽	청파5속	장영숙	
에베소	백혜숙	오복순	청파6속	신진식	
빌립보	곽권희	김필순	청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정현주	청파8속	이범석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청파9속	김인걸	
			청파10속	장영숙	

청파의 노래

언제 어디서나 한 -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
 하는 교회 주님 이 주신이 아름 다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느 교회 내 이웃의 아픈마음
 내 아픔으로 여기며 평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퍼질때까지 주의 사랑 힘써 전하리 생명과 평화
 온세상으로 전하는교회 청파교회 주님 사랑가득한
 이 교회를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니
 다

- 2부찬 양 청파의 노래 다 함께
 -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 봉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억압과 사망의 그물을 찢고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주님의 몸을 이루어 어둠에 짓눌린 이들에게 참된 빛을 전하며 사십시오.
- 다 함께: 아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온갖 억압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듯이 우리도 주님의 몸을 이루어 이 땅에 참된 자유와 생명을 가져오는 이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세계의 마을들과 친구 되기 정호진 목사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저녁 집회 / 떼제 찬양과 기도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2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홍재 장로	인도자 박석희 집사

5월	1부 영접위원	김성우 박유경
	1부 헌금위원	오미숙
	2부 영접위원	하현철 김종락 최재욱 정현숙 박영신 이수정 김현주
	2부 헌금위원	김인걸 박미영

박정오 목사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룩하고자 원하시는 하늘 뜻이 이루어진 이상의 장소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추악한 장소로 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당신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하여 가슴 답답한 일을 저희들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겠습니다. 그 자유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만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고, 진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여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고백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며,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에 안 들리고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저희들이 마음 문을 닫고, 영의 귀를 닫고, 영의 눈을 감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들리지 않는 것 중에서 듣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는 신성한 영력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세미한 소리에도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살아 있는 심령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을 믿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3.4.24.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나 자신의 행복에 도취해서 우리의 이웃에 눈길을 돌리는 일을 게을리 했습니다. 내가 배부르기 때문에 배고파 죽겠노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이 시끄럽게 느껴지는, 스스로가 오만에 빠져 살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나대로 사는 일이 그렇게 불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그것조차도 시끄럽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자칫 잘못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울부짖음이 곧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발하는 말인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느 모양으로든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는 일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 억압을 받지 않는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중의 깊은 곳에 있는 바람이 그대로 실현되는 국가와 제도가 그리고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예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들 편에서시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던, 저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한 자들과 눌린 자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고난을 겪거나 가난에 만족해가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권주의자들, 세계도처에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캄캄한 곳에 갇혀 갖은 고문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외쳐대고 있는 저들의 들리지 않는 울부짖음을 우리 마음속의 귀로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고귀한 인권이 보장되고 신장되는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84.12.16.

- 박정오, 「주여 당신으로 해서 든든하였나이다」 중에서

* 박정오 목사님은 1970년부터 1997년까지 청파교회 담임목사로 일하셨습니다.